

감 정 기 록

Choi Jeong Soo

평범한 삶, 일상의 공간 속에서 만나는 소소한 사건, 상황들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반응을 가져온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그 무언가로 비춰지고 여러 가지 감정의 반응들을 수반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로 인한 개인의 기쁨, 놀라움, 분노,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들은 자신의 주체적 인식된 감정언어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지만, 또한 이러한 감정의 이미지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서로간의 작용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망 안에 포함되려는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속 개인의 감정생산은 -스스로는 비록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회적 맥락 안에 놓이게 된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 속에 미세한 먼지들은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그와 같이 현대 우리사회의 이기적인 권력, 자본, 매스미디어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인식과 사고과정에 개입하며 작동한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의 권력화되고 시스템화 되어버린 과정 속의 부조리함, 양극단으로 내몰리는 상실감, 다양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피로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 자기판단을 혼동하게 만들며 인식의 가치부재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사회라는 공간속에 스스로의 주체적, 이성적 판단은 모호하고 불안하다. 무의식적 본능에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이입하는 감정전이(emotional contagion) 현상이나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감정(ambivalence) 등은 나와 타인, 그리고 무감각적 집단 속에서 노출되고 희석되고 대체된다.

나와 타인이 존재하는 사회 공간 속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다양한 외부요인들로 갈등과 충돌 속에 감정이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러한 감정의 이미지들은 지금의 시간과 현상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시각적 기호들로 의미화되고 기록된다.

특히 지금도 어느 한편에 머물러 있는 4 1 6 세월호에 대한 감정과 기억이 남아있다. 일종의 한재난사건으로 치부하고 간과하는 세력과 마음 한 켠에 깊이 묻어두고 언젠가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개인의 감정이 아직도 희미하게 공존한다.

‘감정기록’은 누군가에게 남겨진 기억과 상처를 예술적 시각언어로 기록하는 작업이다. 비록 무감각적인 사회 속 매마른 감정, 얼어 붙은 감정을 끄집어 내는 나만의 작은 실험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기억되고 앞으로 기억되어야 할 지금 우리사회의 현상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기억은 감정을 수반하고 또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남겨지지 않고 집단의 기억으로, 역사의 한 단편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기록들은 최근에 파도의 지속된 움직임을 파노라마식 드로잉 연작과, 아직도 기억되고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화한 설치, 올라설 수 없는 종이 구조물 조형으로도 제시된다.

2017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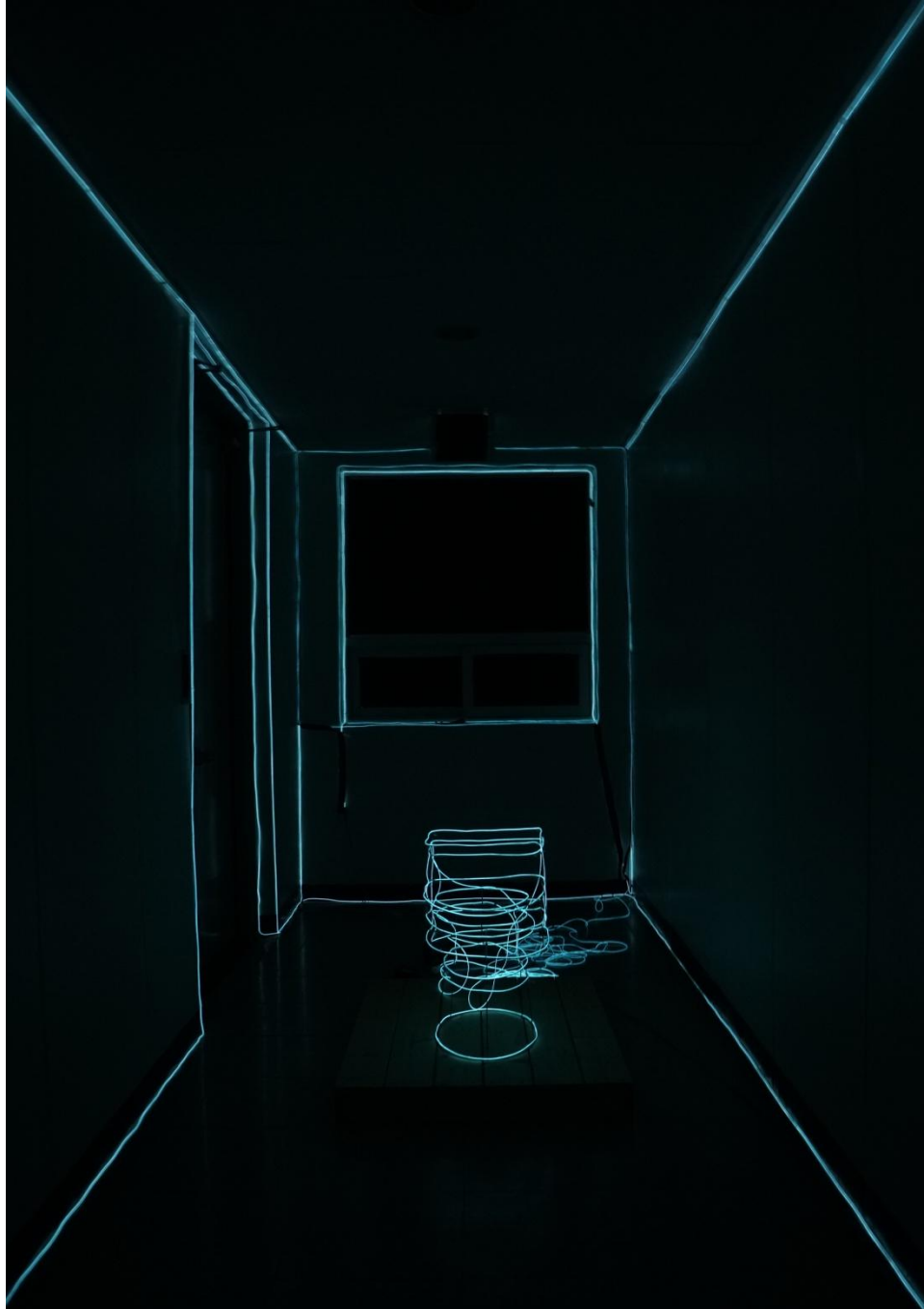


가시거리_플라스틱, 혼합재료_가변크기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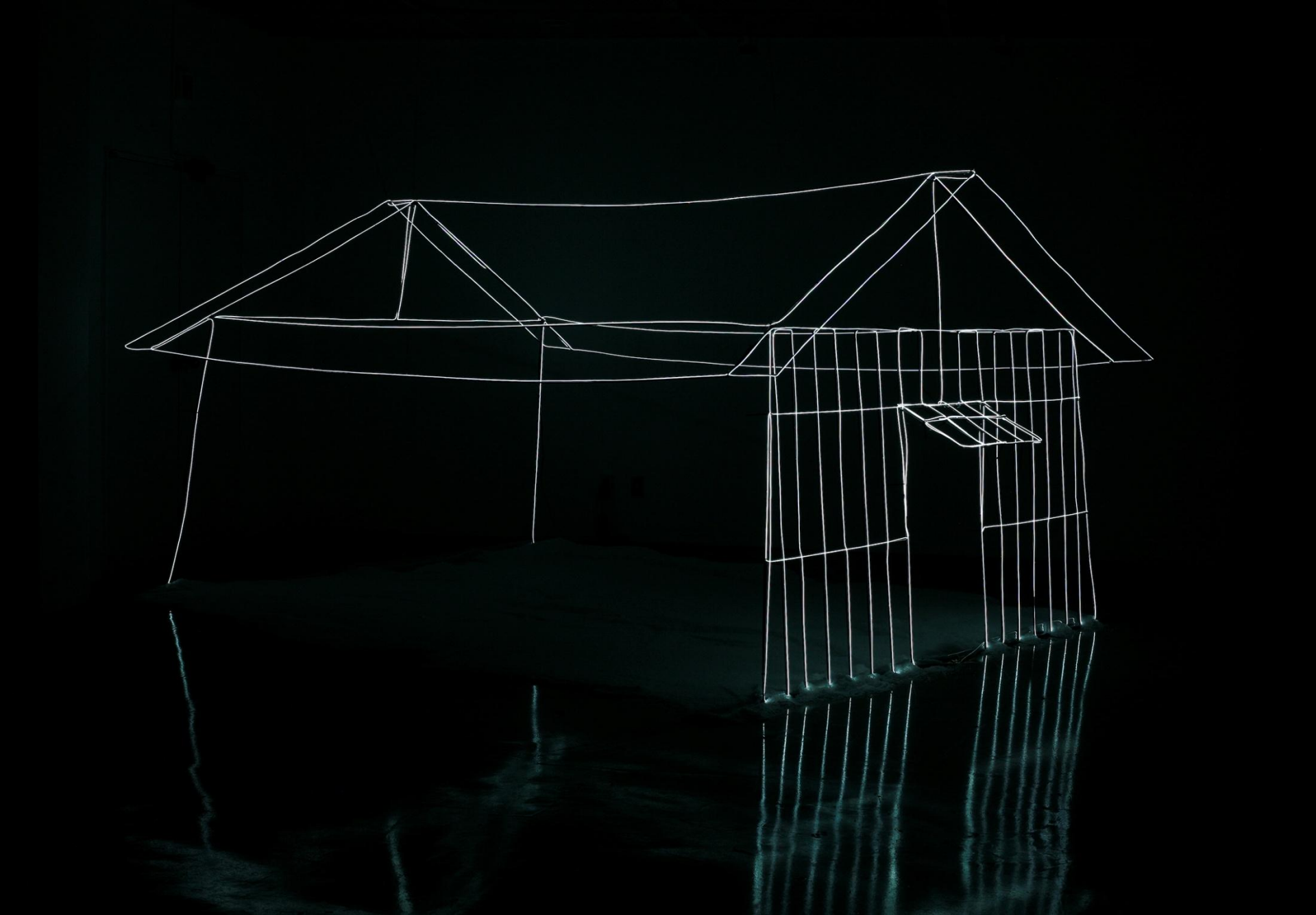
가려진 기억과 버려진 시간들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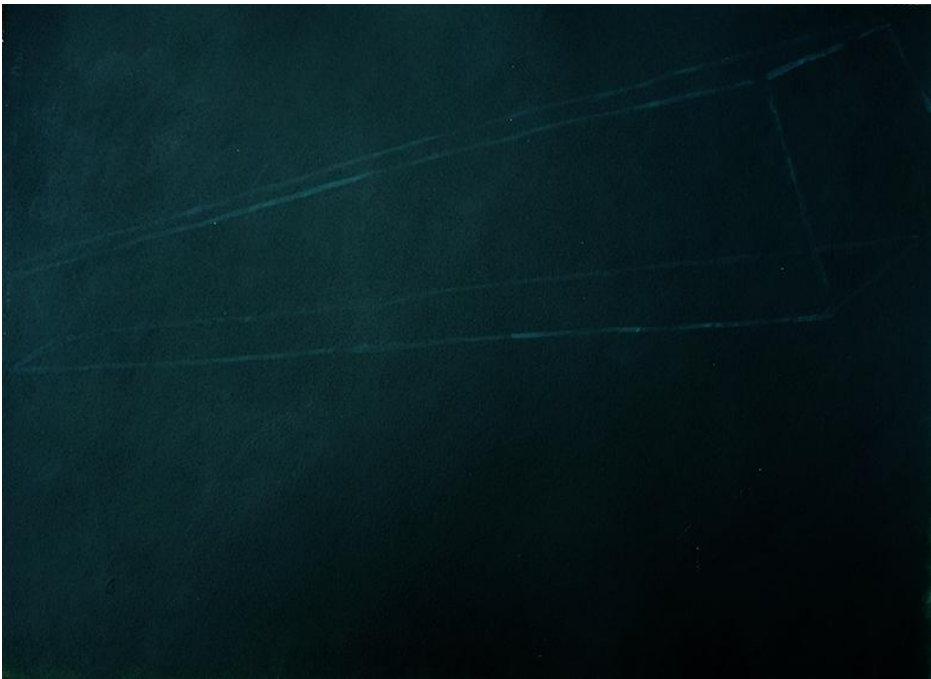
가시거리 I_라이팅 와이어 및 텍스트_공간설치_2017



drawing_라이팅 와이어
_공간설치_2017



세번째 기억_라이팅 와이어, 소금, 메탈_200x200x400cm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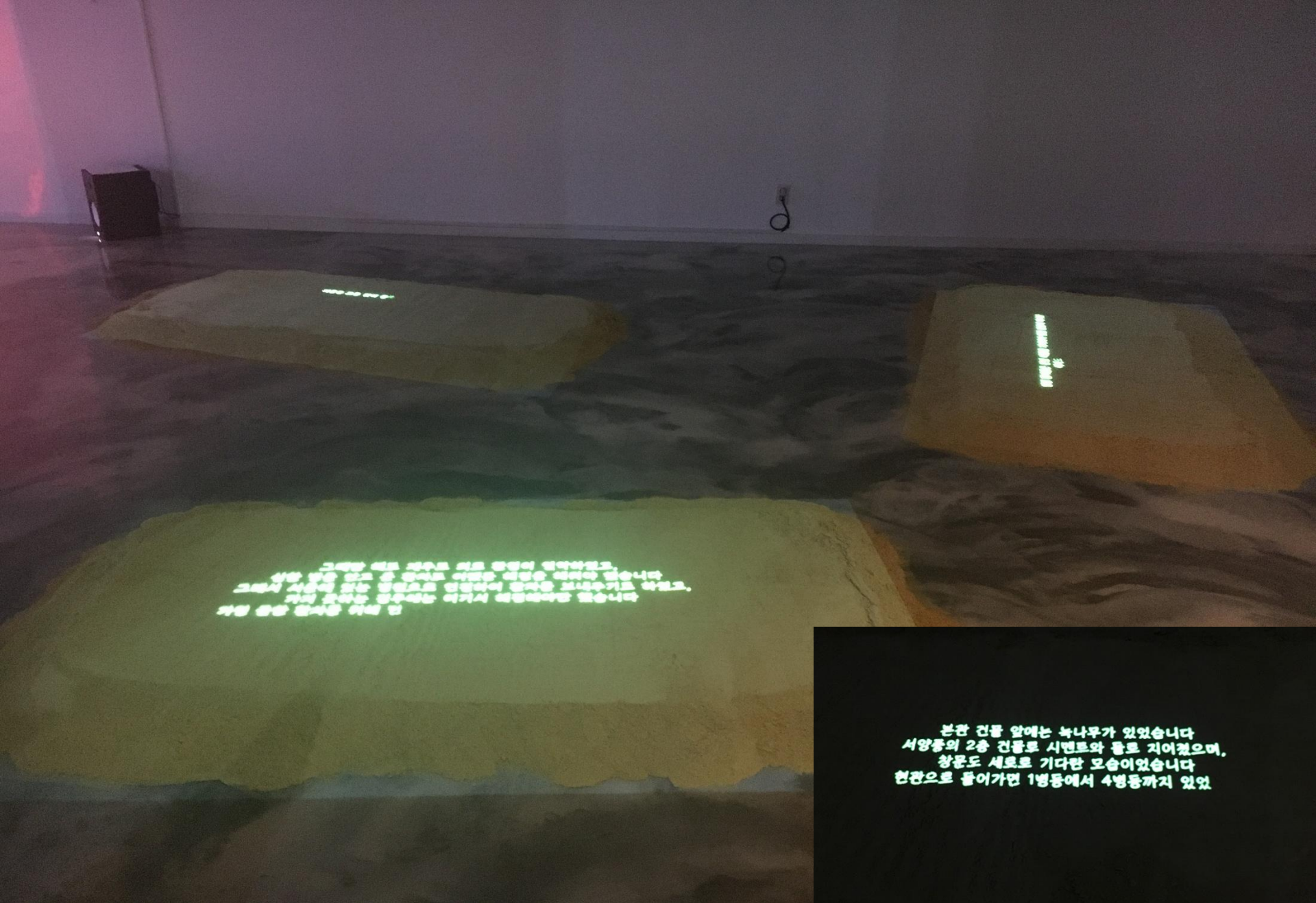
습작 I_아크릴컬러, 종이_28x37.5cm_2017



습작 II_아크릴컬러, 종이_37x56cm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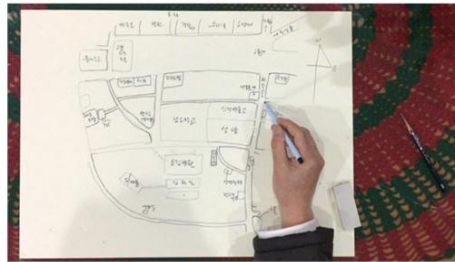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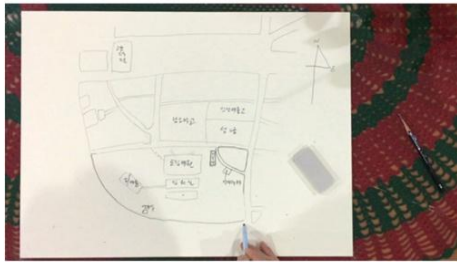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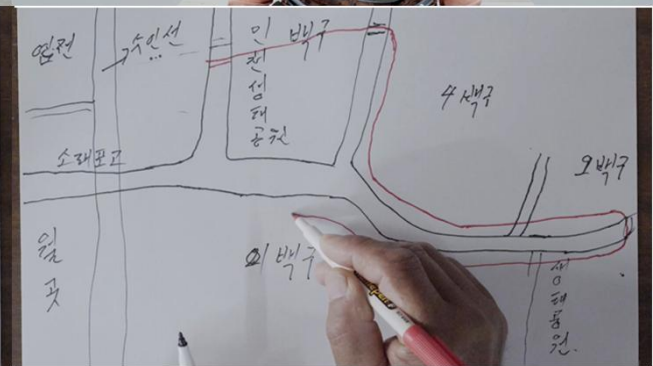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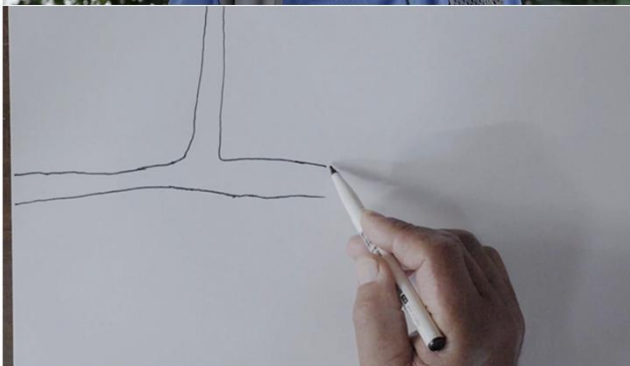
자화상_영상 및 텍스트 설치_2017



그러한 때로 처음으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 받은 양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든 정열으로 연결하여 사랑을 나누기로 하였고,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여기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신 사랑 나누는 사랑의 열매

본관 건물 앞에는 녹나무가 있었습니다.
서양풍의 2층 건물로 시멘트와 돌로 지어졌으며,
창문도 세로로 기다란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1병동에서 4병동까지 있었









2014_나뭇가지 , 분필 텍스트_공간설치_2015



Red festival_oil on canvas_91x116cm_2017



Red festival-1_oil on canvas_53x33cm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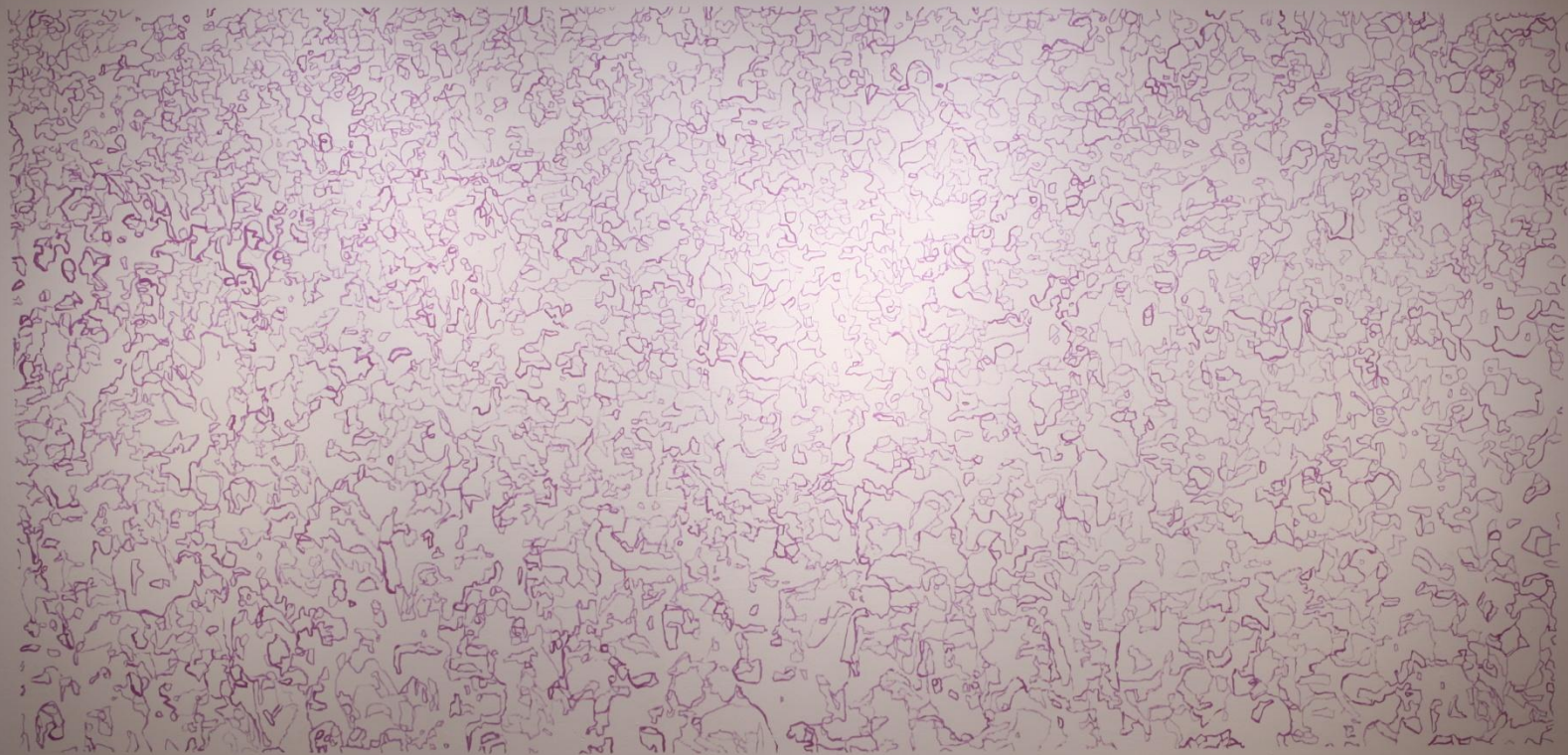
R + B_oil on canvas_116x91cm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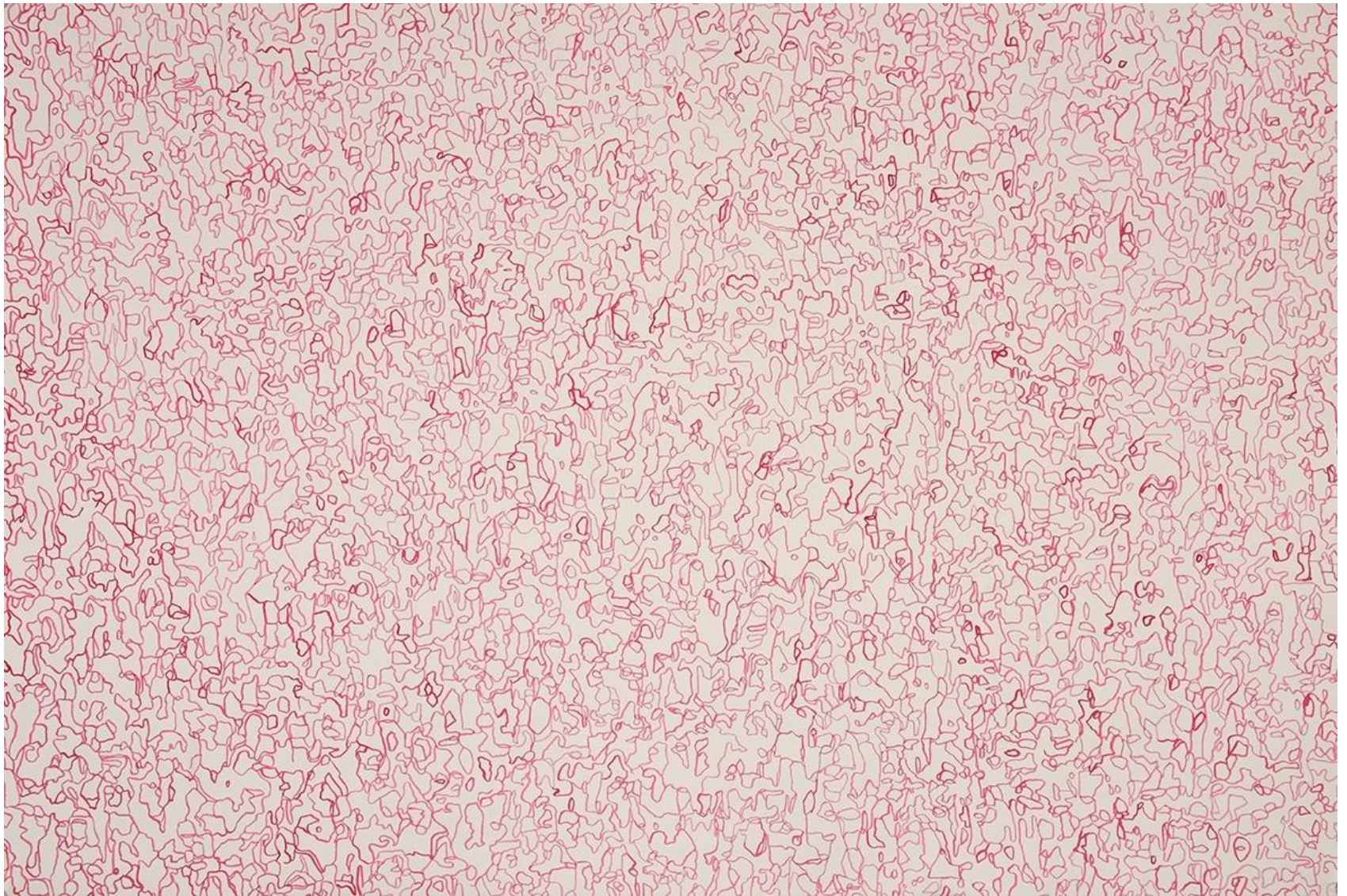
Y + V_oil on canvas_65x80cm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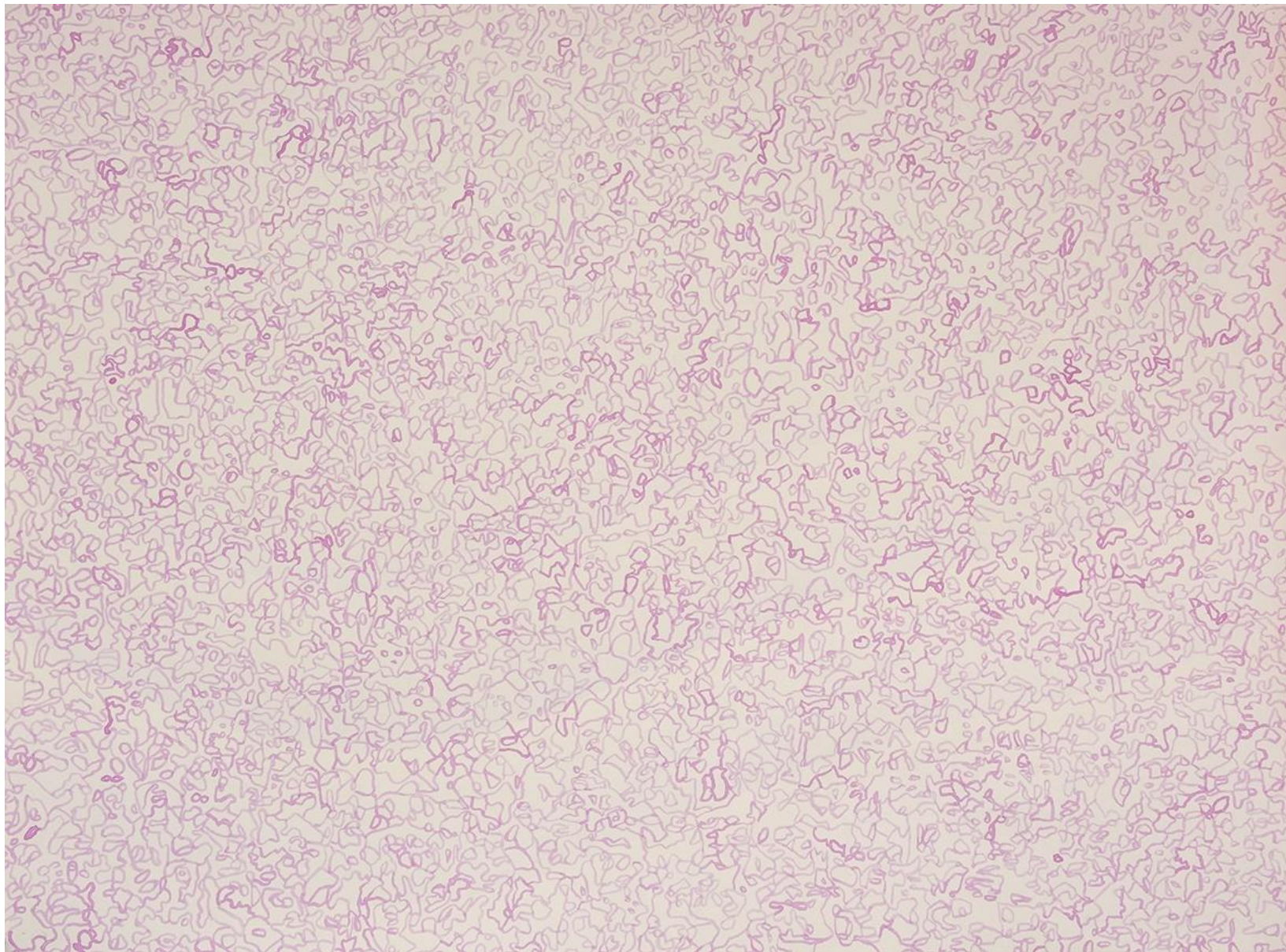
Y + B_oil on canvas_80x65cm_2016



Drawing-2016_벽면에 아크릴컬러_400x200cm_2016



Crowd 슬작_acrylic color on canvas_111x75cm_2016



Crowd 습작_acrylic color on canvas_75x56cm_2016

최 정 수 / Choi, Jeong Soo

1972년 제주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독일 국립조형예술학교 STUTTGART KUNSTAKADEMIE 디플롬 과정을 마쳤다.
현재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 작가로 작업과 함께 지역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전

2017 – 반줄, 서울
2016 – 갤러리토스트, 서울
2011 – 한 갤러리, 파주
2009 – SELF SERVICE(diplom), 독일
2002 – 덕원갤러리, 서울

그룹전

2017 APT 1탄, 평화문화진지, 서울
바람이 부는 언덕 기획전,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원도심탐구생활, 예술공간 이아, 제주
라이브쇼-개0예정 편-, 예술공간 이아, 제주
2016 어린이 예술섬, 누에섬 전망대, 안산
COLOR FIELD, 시흥갯골생태공원, 시흥
The Origin-제주국제아트페어, 시민회관, 제주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쇼핑, 갤러리토스트, 서울
염부, 기억의 지리학,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Reality Sensible,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
아트바겐 2, 갤러리토스트, 서울
제4회 국제 장애인 인권전, 서울가든호텔, 서울
'VOID', 갤러리토스트, 서울
'정지된 듯 정지되지 않은', 마포갤러리, 서울
AQUA-C,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전이된 놀이, 갤러리 오, 서울

- 2015 황금산프로젝트 아카이브전,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
 '문 프로젝트', 도일시장, 경기도 시흥
 '알 수 없는 그 무엇', 옥과미술과, 전남
 '삼탄-아트페스티벌', 삼탄아트마인, 정선
 홍익아트페어, 서울가든호텔, 서울
- 2013 한라미술인협회 정기전, 제주도 문예회관
- 2012 2012 한국 드로잉 50년 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현대 회화제 구상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아트뉴욕- 코리아 아트페스티벌, 뉴욕
 마음의 소리전, 청하미술관, 서울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11 2011 한중 현대미술교류전, 대덕 문예회관, 대전
 아트로이드 77, 한 갤러리,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 2010 하이 서울페스티벌, 청계천 설치미술제 2010, 서울
 새로운 시선,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2009 홍익대학교 회화과 영상제, 홍익대학교, 서울
 Diplom Exhibition, Self-Service, Stuttgart
 Ohne-Titel, Kunstverein, Ludbigburg
- 2008 Divided, Ausstellungshalle im Neuen Rathaus, Forchheim
 Test-Bild, Polster-City in Zufenhausen, Stuttgart
 Lange Nacht der Museen, Dinkelacker, Stuttgart
- 2007 Freie Schwimmer, Kunstzentrum Karlskaserne, Ludbigsborg
 Haueisen-Kunstpreis 2007, Ziegeleimuseum, Jockgrim
 Kunstschnee, Kunstbezirk im Gustavsiegle-Haus, Stuttgart
 Contemporary International Art from Korea, Art Center Berlin, Berlin
 Divided – Geteiltes Land, Kunstverein, Bayreuth
 Filds of Vision, Kunst und Bauschloßerei, Leipzig
 Das Projekt, die Klett Passge am Hauptbahnhof, Stuttgart
- 2006 Die Blaue Nacht 2006, Luernberg
 Hier und anders, Tor Haus, Ludwigsburg
 Vorfahrt, Stutgart
 Frühblüte, Bunker, Stuttgart

- 2002 Boundary, 개인전, 덕원 미술관, 서울
동아 미술제,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Image 24 Painters, 이브 갤러리, 서울
40.Com, 예가족 갤러리, 서울
- 2001 23회 중앙 미술대전, 호암 갤러리, 서울
The scent of the wind, 예나루 갤러리, 서울
- 2000 Korea Young Artists Biennale 2000, 대구 문화예술센터, 대구
22회 중앙 미술대전, 호암 갤러리, 서울
- 1999 서울 현대 미술제,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Pass-Word, 상 갤러리, 서울
한강 깃발전, 한강 시민공원, 서울

작업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경기창작센터
연락처 : 010 2617 6994 / marmar72@hanmail.net